

하루를 시작하며



부희석
전 제주사대부고 교장·칼럼니스트

한민족의 동족상잔인 6·25 남침전쟁이 발발한지 올해로 70년, 평소에는 잊혀진 이름처럼 무심코 서 있는 바위같이 보이지만 해마다 녹음이 짙어가는 6월이 되면 어느덧 그 바위는 당당한 전적비의 제 모습으로 합성을 외치기 시작한다.

전적비의 빛깔도 분노의 빛깔에서 통탄의 빛깔로 바뀌고, 자유민주주의의 빛깔로 바뀌어 갈 것이다.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갈 후대들은 처절한 합성과 빛깔을 마음의 눈과 귀로 보고 들으며 열린 가슴으로 사랑과 평화를 키워나가야 하리라.

희한하게 돌아가는 세상사

일제 36년의 식민지 생활을 청산하고, 창대한 자유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온 국민의 여념없이 진력하고 있을 때, 김일성 괴뢰도당은 치밀한 적화통일 계획을 수립하고 소련제 비행기, 탱크, 무기, 전자, 장갑차 등을 이용해 1950년 6월 25일 오전 4시30분 탱크를 앞세워 38선 전역영역을 불법남침했다. 3일만에 서울이 몰락했다. 전쟁 준비가 전무했던 대한민국 국군은 16~18세 학도호국단이 중심이었고, 전쟁무기도 북한이 제공해주었다. UN군이 들어오기까지는 방어하는게 전략이었다. 서울, 대전, 충청남도, 전라도, 경상도까지 밀리다가 맥아더 장군이 지휘한 인천상륙 작전을 성공하면서 계속 북상해 평양까지도 점령해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을 보는 듯 했으나, 중국 인민군이 인해전술로 전세가 바뀌게 돼 휴전을 맞이하게 됐다. 이념이 상반되고 갈등의 골이 깊

다고 해도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있지는 않을 일이다. 전쟁은 곧 가난이고 굶주림이며, 파괴이고 죽음이다. 전쟁에서 유명을 달리던 영웅도 잊지 말아야 한다. 희생된 넋을 위로하기 위해서도 피아(彼我)를 넘어 전쟁으로 희생된 모든 넋을 사랑하며 내편 내편을 나누지 말고 온정이 넘치는 사회가 구현돼야 한다. 청와대 특감반에서 감찰을 받던 유씨가 사표를 낸 뒤 국회 수석전문위원과 부산시 부시장으로 승진하는 것을 보고 '세상이 희한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했다. '유씨 감찰 무마 의혹'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사무관은 감찰진술에서 유씨는 금융위 국장 시절 아파트 구입 자금 2억 5000여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뒤 1000만원을 떼 먹고, 오피스텔 보증금과 월세를 대납시키는 등 업체들을 이용한 게 한 두 차례가 아니었

다. 비리 수법이 막장 수준이라 감찰반은 제대로 손 본다는 방침이었는데, 갑자기 감찰 중단지시가 내려오더니 이 자리, 저 자리로 영전까지 했다.

문 정부가 적폐 청산을 국정과제 1호로 내걸고, 전 정권 사람들을 이 잡 못 하더니 이 정권과 가까운 사람은 온갖 반칙을 저지르고 특혜까지 누렸다.

전 법무부 장관 조국의 아들에게 가짜 인턴증명서를 떼준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청와대 최고 비서관은 친문 2중대를 자처하면서 모정당 대표가 된 뒤, 검찰총장을 제일 먼저 손볼 것이라고 엄포를 놓는가 하면, 피고인으로 재판에 넘겨진 중 "기자회견을 해야하니 재판을 중단해 달라"고 판사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진정 민초들이 위정자에게 거는 기대는 평등·공정·정의가 바로 서는 위정치를 모습을 보고 싶을 뿐이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설

기업 유치 시원찮는데 더 어려워졌으니

제주지역 민간자본 유치는 형편없을 정도로 초라합니다. 실적이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 5년간 수도권 등 국내 기업 16곳과 투자협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이행한 기업은 2곳에 그쳤습니다. 제주지역의 기업 유치가 시원찮는데 정부가 수도권 기업 지원 기준을 대폭 강화해 난항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제주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2개사 22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 전국 혁신도시 내 수도권 기업 17개사가 이전했으나 제주혁신도시로 이전한 기업은 전무합니다. 전국 지자체가 혁신도시 내 기업 유치를 위해 기업 방문과 투자유치 설명회를 진행했으나 제주도는 전혀 실적을 내지 못한 겁니다. 이처럼 제주도의 기업 유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 기업의 제주 이전에 대해 발목을 잡는 양상입니다.

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시 업종 변경을 규제하면서 앞으로 기업 유치가 더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제주지역의 민간자본 유치는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지난해 제주도가 민자유치 확대를 위해 민자유치지원본부까지 구성했으나 한 건의 실적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제주도가 투자유치를 위해 이같은 기구를 만들었지만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외국인 투자 실적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제주지역 외국인 직접투자는 2016년 9억7000만 달러로 정점을 찍은 후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3억1400만 달러에 불과할 정도로 외국인 투자 위축이 심상치 않습니다. 제주에서 기업하기가 그만큼 좋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나 투자 유치는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만큼 과격 지원 등 제주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합니다.

역대 가장 빠른 올해 장마, 철저한 대비를

제주지방이 이번주부터 비바람을 보이며 올해 장마가 시작됩니다. 예보대로 10일부터 장마전선 북상으로 비가 내리면 지난 197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2011년 6월 10일과 함께 47년만에 가장 빠른 장마로 기억되는 진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제주지방 장마가 지난 30년간 평균적으로 6월 20일 시작돼 7월 20일까지 한달간 이어졌고, 작년에는 6월 26일 시작된 점을 감안해도 올해는 꽤 이른 편입니다.

올해 장마가 역대급 조기 등판으로 장마철 재해·재난 예방활동의 재점검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제주도와 행정시를 비롯한 각급 기관들은 장마철을 앞두고 이미 자연재해와 재난예방을 위한 사전대비 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도는 우선 장마철 집중호우를 대비해 저류지와 대형공사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상습침수지역 하천 등 자연재해취약지역 실태 점검과 미비사항 조치에서부터

하천범람 차량침수 급경사지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담당공무원 대상 교육 및 주민대피체계도 구축했습니다. 행정시는 시민 접근성이 높은 공원 산책로 시설과 배수로 정비, 놀이·체육시설 및 안내판 등 호우시 취약시설에 대한 정비에 집중해 왔습니다. 도교육청도 장마철을 앞두고 옥상 물고임, 옥상 배수구, 우수흡통 및 옥외 배수로 등 침수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교육시설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매년 장마철을 앞두고 사전대비는 이뤄져 왔지만 비 피해는 적잖이 발생해 왔습니다. 현 시점에서 예측불허의 자연재해를 피할 수 없어도 재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재점검이 요구됩니다. 올해 장마가 가장 이른 시기에 오고 있어 장마기간도, 강수량도 예측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최악의 경우 피해도 더 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스-in

“제주도 안하무인식 인사행정”

“귀 막고 눈 감은 것 같다”

○...원회룡 제주도지사가 음주운전 전력의 전직 공무원들을 행정시장으로 내정하면서 지역사회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원철 원내대표가 ‘안하무인식 도정’이라고 비판. 박 원내대표는 9일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인사청문 요구에 앞서 도당에서 의견을 밝혔음에도 강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지적.

특히 도민들의 눈높이를 도외시하는데 도민들이 공부하고 있지만 제주도정에서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 오은지기자

“통신장비 고장 막아라”

○...제주시는 장마철 예상하지 못한 정전·낙뢰로 인한 통신장비 고장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민서비스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 9~12월 26개 읍면동과 외청부서 8곳의 정보통신환경을 점검. 김현석기자

점검에선 통신장비 전원부와 무정전전원장치(UPS) 정상작동 여부, 서지보호기·누전차단기 동작 여부를 점검 확인.

시 관계자는 “미비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보완 조치하고, 노후 통신장비와 부대시설은 정비해 행정민원서비스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고 설명. 문미숙기자

골프동호회 영장 신청 예정

○...최근 본보가 보도한 ‘자치경찰 도내 최대 규모 골프 동호회 수사 착수’와 관련해 자치경찰단이 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내 골프업체의 관심이 집중.

9일 제주자치경찰단은 “최근 검찰과 해당 사건에 대한 3차 협의를 마쳤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언.

해당 골프동호회 회장 A씨는 “재판을 통해 위법 여부를 가려야겠지만, 통상적인 동호회 활동으로 인해 수사를 받는 현실이 참 답답하다”고 토로. 김현석기자

열린마당

장년층 1인가구 전수조사에 적극 동참을



강선하
제주시 오라동주민센터

아동·청소년 복지, 노인복지라는 말은 있지만 장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을까.

2017년부터 고독사 예방과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장년층 1인가구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만50~64세 1인가구 대상으로 실시하며 7월 10일까지 조사가 이뤄진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혼자 사는 장년층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장년층 고독사가 우리사회의 복지사각지대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건강유료 판매원을 통한 안부확인 서비스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이 시행단계에 있다.

하지만 아직도 시행착오는 많다. 장기간 혼자 사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거부감이 있어 방문을 꺼리고

본인이 조사대상이라는 점에 불쾌해하며 문전박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부감이 많은 방문조사 대신 1차적으로 조사표를 동봉해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대면 조사가 부담스럽다면 우편으로 또는 전화로 본인의 위기사항을 알려주면 된다.

오라동 맞춤형복지팀에서는 대상자의 안부 및 안전을 수시로 확인하고자 건강유료 서비스를 연계해 다음 방문 시에도 건강유료가 남아 있으면 즉시 위험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된다. 이외에도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해 고용·의료·금융 등 관련 기관에 서비스를 의뢰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장년층 1인가구 조사는 첫 발을 내딛 지 3년 채 지나지 않았지만 누군가에겐 도움을 절실히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며 조사에 임하고 있다. 대다수가 형식적인 조사에 그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소수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기에 적극 조사에 협조해 더불어 사는 복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부고
한동훈(김녕초등학교 동북분교장 교사)
아버지 청주항공 정택(향년 65세)께서
서기 2020년 6월 7일 15시 1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0년 6월 10일(수요일)
▶발인일시: 2020년 6월 11일(목요일)
오전 7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9빈소
▶장 지: 대흘리 선영
부인 김양자
아들 한동훈 며느리 강유리
딸 한민경
* 연락처: 한동훈 010-6629-4758

합병공고 및 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제이씨에너지(“갑”)와 주식회사 제이씨에너지(“을”)에서는 각각 2020년 6월 8일 주주총회의 결의로 “갑”은 “을”을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고 그에 수반하여 주식회사 제이씨에너지의 액면 금10,000원의 보통주식 1주에 대하여 주식회사 제이씨에너지의 액면 금10,000원의 보통주식 1.5주를 할당 교부하기로 하였으므로, 주식회사 제이씨에너지의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본은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공고함.
2020년 6월 10일
“갑” 주식회사 제이씨에너지
제주시 번영로 233, 1층(화북이동)
사내이사 송기택
“을” 주식회사 제이씨에너지
제주시 부록길 62(화북이동)
사내이사 김동현

무연분묘개장공고(1차)
*본 공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무연분묘 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분묘의 소재 및 가수
소재지: 서귀포시 청산읍 수산리 117번지
가수: 기우, 비고: 1기
2. 개장사유: 토지취득, 재산권 행사 등
3. 개장일시: 서귀포시청무연분묘관리과
4. 개장방법
○ 연고자가 있는 경우: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 연고자가 없는 경우: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따라 개장
5.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신고인 및 문의처
○ 신고인: 김택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하도1로1 107-19번지
(010-4040-5522)
○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 064-700-6522
7. 신고시 준비서류
○ 본공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증명서류 등)
8. 기타사항: 개장공고 후 위 시범구간 내에 시설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된 분묘(한정요 등)에 대하여 이 공고로 갈음함.
상기와 같이 본공 개장 공고를 합니다.
2020. 6. 10.
위 공고인: 김택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하도1로1 107-19번지

제주지방법원
판결공시
• 제1심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17고단1682(2017고단2507, 2017고단2580, 2018고단281, 2018고단922) 황영등
• 피 고 인 정형주
위 피고인은 형평등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6. 9.
판사 서근찬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주)전기자동차
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향대 & CCTV)
NETWORK 설치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 점: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